



장수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지난 7일 오후 1시 10분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교감, 학교폭력 업무담당교사 그리고 장수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과 학교폭력전담 조사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수는 총 2강좌로 진행됐으며, 학교폭력 제도의 기본적인 이해, 사안처리 절차, 민원대응 등에 대한 내용으로 방법적인 지애편비 김의성 변호사가 진행하였고 두번째 강의는 전북체육회 스포츠 인권위원 최성광 위원이 디페이크 사이버 성폭력의 현황과 문제점, 사이버성폭력 대응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장수=교관호 기자



남원 동동동, 어르신 휴대전화·안전벨트 사업 추진

남원시 동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순자)는 70세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과 연계한 방문을 통해 '어르신 휴대전화·안전벨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휴대폰 뒷면에 본인과 보호자 연락처 라벨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사업으로, 응급상황 및 신변보호에 취약한 대상자의 일상 및 위기상황 시 신속한 연락 대처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9월말 현재 동동동 어르신 378명에게 안전벨트 서비스를 제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공치리 골프 동호회, 운봉읍에 햅쌀 기부

남원시 운봉읍(읍장 이은주)은 공치리 골프 동호회에서 10kg 햅쌀 33포(1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공치리 동호회(회장 정용이)는 회원 12명으로, 남원시 관내 읍면동 중 한 곳에 선행을 베풀고 있으며, 이번에 전달된 햅쌀은 운봉읍 맞춤형 복지팀이 1일 1가구 방문을 통해 발굴한 33개 마을 취약계층 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이은주 운봉읍장은 "공치리 골프 동호회의 따뜻한 온기가 운봉읍까지 전달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난치병 치료비 1000만원 지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하나금융나눔재단, 무주지역 한 학생 중단된 치료 재개

무주군 안성면 임 모 학생(18세)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하나금융나눔재단' 으로부터 난치병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치료비 1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임 모 학생은 10여 년 전 선천성 신경섬유종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비(1개월 처방약 비용 2백만 원 정도) 감당이 어려워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2024. 6.) 현재 대전 지역 모 대학병원에서 종과 크기를 줄이는 약물 치료를 진행 중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하나금융나눔재단'에 임 모 학생을 추천했던 안성면 공진보건진료소 오영진 소장은 "진료소에서 학생을 만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컸는데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돼서 너무 다행"이라며 "우리 학생이 빨리 건강을 되찾아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바란다"라고 전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비 모금 캠페인을 진행, 병



마로 고령받는 대상자들에게 치료비(1순위 2명 각 1천만 원, 2순위 4명 각 8백만 원, 3순위 6명 각 6백만 원, 4순위 100명 각 5백만 원)을 지원하며 희망을 함께 전하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남원시, 자활상품 시군 순회장터 개최

남원시는 지난 8일 자활상품 시군 순회장터를 시청 로비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시민들의 관심과 큰 호응에 다시 한번 순회장터를 개최한 것으로 순회장터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착한소비를 촉진하고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자활센터 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된 각종 제품을 홍보·전시·판매하는 행사이다. 이번 순회장터에서는 남원 이의 전주, 군산, 김제, 진안에서 참여하고 베이글 커피 음료, 감람, 누룽지, 그레놀라, 핸드메이드 천연제품(비누), 반려동물 간식, 생선구이 세트 등 여러 제품이 저렴한 가격에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임흥근 남원지역자활센터장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익힌 기술로 직접 생산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순회 장터를 통해 자활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자활상품 판매 촉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직무스트레스 해소 힐링프로그램 운영

정읍시는 지난 7일과 8일, 시청 소속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워킹잡업과 민원응대 등 업무 강도가 높은 공무원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사반법인 수향자연식생활문화원의 김현희 대표를 초빙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꽃과 식물을 활용한 치유 음식 만들기과 건강을 위한 제조 체험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힐링을 경험했다. 이후 직접 만든 음식과 차를 시작하는 시간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꽃과 식물의 치유 효과에 대한 강의 를 통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앞서 이화수 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해 시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근무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자치도 여성정책연구소, 자립준비청년지원 정책포럼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소장 유은경)는 자립준비청년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포럼에는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자립준비청년이 한자리에 모여 자립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세부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의 발제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측면의 어려움과 이들을 지원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있게 다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확



대와 전달체계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광혁 교수 주도 하에 자립지원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을 위한 양적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정책 개선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여성가족재단 전정희 원장은 "자립준비청년이 혼자서 자립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 산동면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최종 선정 기원' 결의

남원시 산동면(면장 지양근)은 10월 8일, 산동면 이장단협의회와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시가 최적의 부지로 선정되기를 기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남원시는 뛰어난 부지 여건과 우수한 접근성, 풍부한 문화 관광자원을 갖춘 최적의 후보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결과 1차 후보지 3곳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산동면의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열



원과 기대를 모아 경찰학교가 남원시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원동열 이장협의회장은 "이번 사업은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물론, 경찰 인력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남원시가 최종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염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9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2024년 10월 11일(금) 오후 6시30분~
전주한옥마을 특설무대(경기전 앞)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출연진



사회-정지원



임창재



백미현



노스텔지어



박영일



백영주